



멋과 품위를 존중하는

신응배(申應培) 박사 -끝-

박 창 근

〈분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3. 뿐만 아니라, 신응배 박사는 1986년 발표된 서울시내 산성비의 연구보고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됨. 이를 계기로 당시 환경청 산하 6개의 지방 환경청을 신설·확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정부기구 축소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부서의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한 큰 계기로 기록된다.

그리고 1970년대 공업단지 주변 및 전국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던 시기에 기존공업단지의 체계적인 오염조사를 통한 수질오염관리 및 대기오염관리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체계적인 환경관리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또, 서울, 울산, 온산, 여천공단 등의 환경평가와 더불어 환경 오염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초하여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오염 확산 수확모델을 이용하여 전국의 대기오염 도를 예측하여서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선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선정된 각 지역의 장기 대기오염관리 계획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환경보전에 공헌했다.

특히, 공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작물피해와 산업폐수배출로 인한 어장의 피해 등 공업단지

주변의 환경피해보상을 위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산업과 농·어민간의 피해보상조정의 이론을 적립함으로 학문적 기틀을 마련했다.

공업단지에 관한 신응배 박사의 관심은 1970년대 공업단지의 환경오염 및 환경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신설공업단지의 조성 초기부터 환경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더불어 환경오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종합적인 환경 생태학적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신설공단의 종합 환경영향평가의 효시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신설 및 확장 발전소의 대기오염 사전감축 전략을 세워 환경오염 예방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신응배 박사의 환경대책 공적 중에서 '환경오염 관리, 정책관련 연구'는 빛난다. 즉, 전국 대기오염 Modeling과 서울 대기오염평가의 통계학적 접근으로 도시 대기오염도 현황, 추세 및 장래오염 절감계획 수립의 기초를 확립하는 등, 환경오염관리 정책 수립의 준거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음. 이는 수질 및 대기오염 확산 수학적 모델링 기법의 국내 정착의 효시적 연구로서 당시(1970년대 및 1980년초) 국내에서는 KIST의 신응배 박사 연구팀이 유일하게 본 분야연구를 수행하였다.

신용배 박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하·폐수처리 신공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실용화하였으며, 현재까지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 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로 단일 반응조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 및 하수의 생물학적 무취 고도처리공정 개발 등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이 기술들은 국가로부터 신기술 인정을 받았다.

신용배 박사는 학회활동에도 열성을 보였는데, 국내학회의 경우, '대한토목학회(KSCE)' : 부회장(1998~1999), 이사(1988~1992), 홍보위원장(1998),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1980~1984) / '한국공학한림원' : 회원(1999~현재)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회원(1995~현재)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 회장(2000~2002), 부 회장(1999~2000), 이사(1996~1999) / '대한환경공학회(KSEE)' : 회장(1988~1992, 제6, 7대) 그리고 국제학회의 경우, '미국 상수도학회(AWWA)' : 종신회원(member since 1969) / 'Pacific Basin Consortium for Hazardous Waste Research and Management(하와이동-서문화센터본부)' : 회장(1990~1992), 부 회장(1988~1990), 이사(1985~1997) / '국제수질환경학회(WEF) 아시아태평양조정위원회' : 부위원장(1989~1995) / '국제수질학회(IAWQ)' : 정회원 / 'New York Academy of Science' : 정회원 등이다.

이런 신용배 박사의 국내외 환경대책 연구, 활동은 국내에서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비롯해 각종 상을 수상하였고, 1992년 6월 Brazil의 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UNCED 회의에서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UN이 수여하는 'Global 500 환경상(Global 500 Roll of Honor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UN이 국제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87년 제정, 세계각지에서 환경보호와 개선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개인과 기관 500명(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그동안 한국인으로는 '박로경(1987)', '권숙표(1989)',

'박창근(1989)', '노재식(1990)', '노용희(1991)', '차철환(1991)' 등이 국내외 환경 보호에 기여한 업적으로 본 상을 수상하였다.

4. 필자와 신용배 박사는 호적상 나이가 같
 • 다.(1938년생) 그러나 신 박사는 자신이 필자보다 한 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연령(年齡) 순으로 따지는 경우는 항상 먼저라고 앞선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자고 하면, 이북(以北)에서 월남하는 바람에 호적이 잘못되어, 한 살 아래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이북(以北)에서 월남한 '38 따라지'인데... 신 박사와 필자가 자주 벌리는 우정 어린 논쟁이다.

이 글을 빌려, 신 박사가 필자보다 한 살 위라는 사실을 공인(公認)한다. 1938년생이면, 무인(戊寅)생으로 '호랑이 띠'다. '호랑이 띠'는 일반적으로 성격이 급하다. 그런데 신 박사는 답답할 정도로 성격이 느긋하다. 아무리 급한 일을 당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다. 말도 '느릿느릿' 하고(목소리는 강함) 여유가 있다. 절대로 호랑이가 될 수 없는 천성이다.

그런 신 박사와 나이 다름(?)을 하면서, 30 여년을 환경보전을 하는 동료로 같은 연배(年輩)의 친구로 지내왔다. 그러면서 항상 신용배 박사의 인품을 존경하고, 처세를 배우며 살아왔다.

한 달 전, 신 박사가 미국으로 출장 간다가에, 'Wind break coat' 하나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design과 color 등을 묻기에, "신 박사 눈에 드는 것"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신 박사와 취향이 비슷하고, 신 박사의 안목이 높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칼럼의 제목과 같이, 신 박사는 세상을 사는데 있어, '멋과 품위'를 존중하듯, 자신을 가꾸는데도 '멋과 품위'를 중요시 한다. 부인 또한 그러하여, 신 박사의 집을 방문하면, 온 집안 곳곳에서 '멋과 품위'가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